



5월 1주차 |

# 주간 인도네시아

## 시장 동향 및 이슈





## 주간 이머징 증시 동향

구분	주가지수	4.30	4.23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VN	1,239.39	1,248.53	↓ -0.73	↑ 12.28	762.47 '20/05/04	1,268.28 '21/04/20
인니	자카르타종합	5,995.62	6,016.86	↓ -0.35	↑ 0.28	4,507.61 '20/05/15	6,435.21 '21/01/13
인도	SENSEX	48,782.36	47,878.45	↑ 1.89	↑ 2.16	30,028.98 '20/05/18	52,154.13 '21/02/15
중국	상해종합	3,446.86	3,474.17	↓ -0.79	↓ -0.75	2,813.77 '20/05/22	3,696.17 '21/02/19
	심천종합	2,298.93	2,298.55	↑ 0.02	↓ -1.31	1,750.82 '20/05/25	2,468.66 '21/02/19
홍콩	H	10,825.25	11,067.84	↓ -2.19	↑ 0.81	9,281.52 '20/09/29	12,228.63 '21/02/17
	항셱	28,724.88	29,078.75	↓ -1.22	↑ 5.49	22,930.14 '20/05/22	31,084.94 '21/02/17
한국	KOSPI	3,147.86	3,186.10	↓ -1.20	↑ 9.55	1,895.37 '20/05/04	3,220.70 '21/04/20



## 주간 이머징 국채 금리(10Y) 동향

구분	4.30	4.23	전주대비(bp)	전년말대비(bp)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2.42	2.40	↑ 2.00	↓ -16.30	2.20 '21/01/15	3.60 '20/04/30
인도네시아	6.46	6.44	↑ 2.60	↑ 57.50	5.89 '20/12/30	8.12 '20/05/06
인도	6.03	6.04	↓ -0.90	↑ 16.50	5.75 '20/05/28	6.25 '21/03/10
중국	3.16	3.18	↓ -1.90	↑ 1.00	2.52 '20/04/30	3.36 '20/11/19
한국	2.13	2.05	↑ 8.50	↑ 40.80	1.28 '20/07/30	2.16 '21/03/18



## 주간 이머징 환율 동향

구분	4.30	4.23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달러-동 (VND)	23,053.00	23,061.00	↓ -0.03	↓ -0.19	22,970.00 '21/02/08	23,439.00 '20/05/04
달러-루피아 (IDR)	14,445.00	14,525.00	↓ -0.55	↑ 2.81	13,878.00 '20/06/05	15,100.00 '20/05/04
달러-루피 (INR)	74.08	75.02	↓ -1.25	↑ 1.38	72.33 '21/02/24	76.21 '20/06/16
달러-위안 (CNY)	6.47	6.50	↓ -0.33	↓ -0.80	6.43 '21/01/29	7.17 '20/05/27
달러-원 (KRW)	1,112.31	1,117.83	↓ -0.49	↑ 2.37	1,081.81 '20/12/04	1,243.91 '20/0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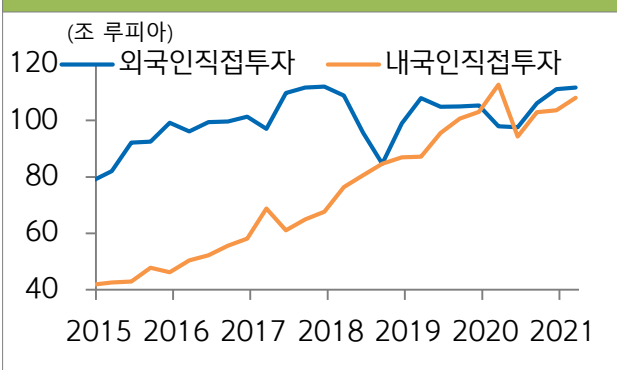


## 인도네시아 경제 및 금융시장 이슈

### ❖ 인도네시아 국내외 투자자들의 직접투자 회복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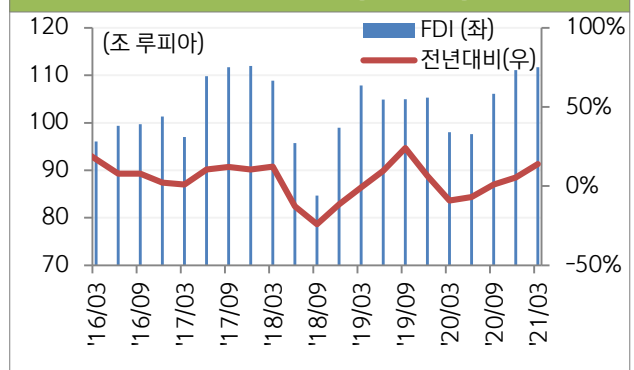
- ▶ 투자조정청(BKPM)이 발표한 인도네시아의 2021년 1분기 직접 투자 동향에서 외국인 직접투자(FDI)와 내국인 직접투자(DDI)가 모두 전 분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1분기 외국인 직접 투자는 111.7조 루피아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하였으며, 내국인 직접 투자는 108조 루피아로 전년 동기 대비로는 -4.2% 감소하였으나 전분기 대비로는 4.4조 루피아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합산 투자 금액은 219.7조 루피아로 전분기의 214.7조 루피아보다 5조 루피아 증가하였음.
- ▶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투자가 부진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기준으로 826.3조 루피아의 직접 투자를 기록하여 2019년의 809.6조 루피아보다 직접 투자 규모가 증가하였음. 올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가에 힘입어 투자 활동이 재개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니켈 매장량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2차 전지 및 전기차 관련 투자 유치 정책에 힘입어 올해 하반기 부터는 지난해 맺었던 양해각서(MoU)들이 실제 투자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2021년 인도네시아의 직접 투자 규모는 연간 목표 수준인 900조 루피아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외국인 직접 투자의 증가는 투자를 위한 외화 유입으로 이어져 루피아화 환율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
- ▶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산업별 투자 비중은 금속 관련 업종이 1분기에 22.4%로 가장 높았음.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해온 광업 후방 산업 고도화 방향에 따라 제련된 금속 광물만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노동집약적인 인프라 사업을 강조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투자 비중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투자 주체별 직접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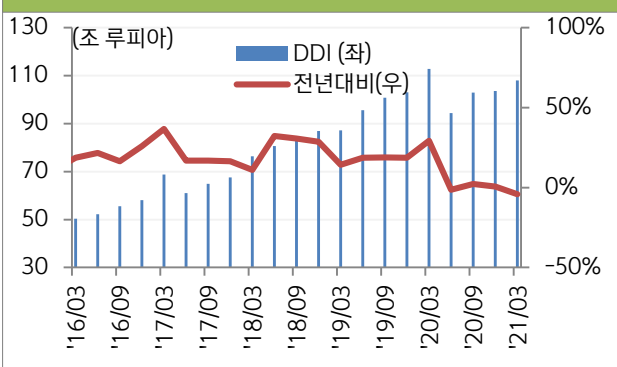
자료: BKPM

#### 외국인 직접투자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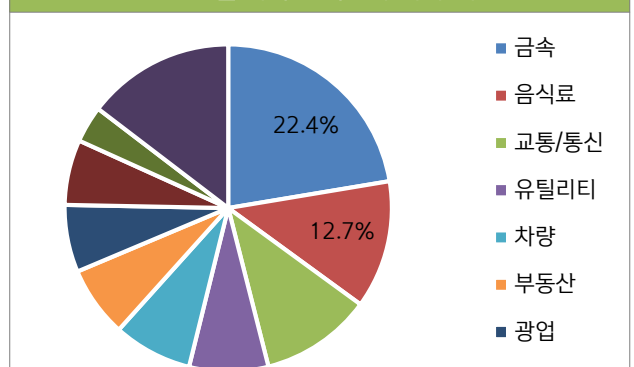
자료: BKPM

#### 내국인 직접투자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BKPM

#### 산업별 외국인 직접 투자 추이



자료: BKPM

# 주요 뉴스





## 2022년 인도네시아 재정적자는 GDP대비 4.5~4.8% 수준으로 추진 중



### ❖ 요약 및 시사점

2022년 예산안을 준비하고 있는 재무부에서 2022년 재정적자 규모는 GDP대비 4.5~4.8% 수준으로 관리하며 이에 따라 22년말 국가 부채비율은 44% 내외로 관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보호 조치를 지속하면서도 생산적인 부문에 예산을 집중하여 구조적인 경제 개혁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임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2년 재정 적자 규모를 808.2조~879.2조 루피아 규모로 예상하여, GDP대비 4.51~4.85%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방향으로 국가 예산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음. 이러한 재정적자 비중 관리를 통해 인도네시아 재정에 대한 신뢰도를 재고할 계획이라고 재무장관은 밝혔음.
- 2022년 재정 예산 계획에서 재정 수입 예상 규모는 1,823.5~1,895.4조 루피아 규모로 GDP대비 10.18~10.44% 수준으로 구상하였음. 세수 수입으로 1,499.3~1,528.7조 루피아를 달성하고, 세외 수입에서 322.4~363.1조 루피아 규모를 달성하는 방향임. 재정지출은 중앙정부의 지출이 1,856~1,929.9조 루피아이며, 지방 지출이 775.8~845.3조 루피아 수준임
- 재무장관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적 자원 개발, 생산적인 인프라 구축, 취약 시민들에 대한 보호 및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정부 운영 등에 균형있는 예산을 배정하여 사용할 것이라고 하였음. 확장 재정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거시 경제 환경이 회복세를 보이고 인적 자원 개발과, 경제 개혁 등을 통해서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하였음.
- 재정적자를 충당하면서 추가되는 순 부채는 GDP대비 4.81~5.8% 수준으로 내년말 인도네시아의 GDP대비 부채 비율은 43.76~44.28%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임.



## 재무장관, 경제성장률을 올리려면 경제의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



### ❖ 요약 및 시사점

재무장관은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개발 등 인도네시아가 투자 유치율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 개혁을 진행함으로써 성장률 수준을 그동안의 5%에 머무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6%대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2022 재정 예산 편성의 주안점이 구조개혁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

- 재무장관은 2025년에 인도네시아 경제가 6%를 넘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기 위해서는 구조 개혁 조치를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구조 개혁의 범위는 다음의 5가지 전략적인 정책 방향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인적 자원 개발, 인프라 개발, 정부 행정 구조의 개편, 규제 완화 및 경제 변혁이 정책 방향임. 구조적인 개혁이 완료된다면 경제의 성장 경로가 강화되고 성장률이 6%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장관은 말하였음.
- 구조개혁이 없이는 인도네시아 경제 성과가 2021~2025년 기간 동안에 2,301조 루피아 만큼의 생산성 저하를 가져와서 5% 수준의 성장률에 계속 머무를 수 밖에 없다고 하였음.. 구조 개혁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올해는 5.3%, 내년에는 5.8%까지도 성장률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도 강조하였음.
- 구조 개혁을 통해서 투자가 활성화된다면 2025년에 인도네시아의 투자부문 성장률은 7%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고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재정적인 부담을 늘리지 않고서도 6%대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고 장관은 당부하였음.



## 투자조정장관, 900조 루피아 투자 유치 목표 계획 공개



### ❖ 요약 및 시사점

올해 연간 투자 목표 900조 루피아의 달성 및 2024년까지 5,000조 루피아 달성을 위해 투자조정장관은 올해의 경우 기성 투자 만으로도 달성이 가능하겠지만 향후 5개 업종(자동차, 광업, 인프라, 신재생, 보건) 등 업종에 집중적으로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지원하겠다는 방향을 밝혔음

- Bahlil Lahadalia 투자조정 장관은 2021년에 900조 루피아, 2024년에 5,000조 루피아의 투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 유치 전략을 발표하였음. 우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규모만 해도 708조 루피아 가량 되며, 이 가운데 517조 루피아는 투자 집행이 될 수 있는 상황임. 건설중인 투자와 일부 준비 중인 투자들이 집행되기 시작하면 올해 실현이 가능한 것들임.
- 여기에 보건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의료 장비들과 의료용품들이 수입산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이를 대체 하기 위한 보건 관련 업종 투자를 늘릴 수 있으며, 이외에 자동차 산업, 광업, 인프라 투자 및 신재생 에너지 관련 상업 등 5개 업종 부문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를 유치해나간다는 계획임. 이를 위해서 투자조정부에서는 내외국 투자자들을 위해 인허가 관련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하였음.
- 인허가 관련 절차가 느려지면 인도네시아 정부의 세수 수입도 저하되며, 국가 경제 성장률의 저하와 사업하기 좋은 국가 순위(EoDB:Ease of Doing Business)를 2024년까지 40위로 끌어올린다는 대통령의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고 하였음.



## 제조 부문이 인도네시아 수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



###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의 非석유/가스 부문에서 제조업 부문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에서는 팜오일 산업, 기초금속 산업, 화학 산업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들 부문은 코로나 기간에도 양호한 성과를 내면서 인도네시아 경제의 받침목이 되었음

- 인도네시아의 음식료 산업, 그 가운데 팜오일 관련 산업이 인도네시아 수출에서 기초 금속 산업, 화학 산업과 더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음식료 산업은 96.9억 달러 규모, 기초금속 산업은 58.7억 달러, 화학 산업은 41.8억 달러의 수출을 차지하고 있음. 식료품 산업 가운데 대부분이 팜오일이 차지하고 있다고 산업부 장관은 말하였음.
- 한편, 인도네시아산 철광석 및 철강 제품의 수출이 외화 수입에 있어서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관련 제련 산업 등의 효과로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화학 산업은 비 석유/가스 수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산업 생산품들은 국가 수출 성과에서 뼈대가 되고 있음
- 산업부 장관은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인도네시아의 제조 기업들이 여러 기회들을 누리면서 수출 성과 달성에 도움을 주었으며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국가 경제 회복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음.
- 2021년 1~3월 기간 동안 비석유 가스 부문의 무역 수지는 36.9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음. 수출만 따진다면 389.6억 달러로 2020년 1분기에 비해서 18.06%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부문은 인도네시아 수출 금액에서 큰 기여를 하였음. 489억 달러 규모의 국가 수출 금액 가운데 제조업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임.





##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 바이오디젤 생산국이라고 발표



###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는 국내 자원의 원유 대체 효과 및 국내 팜오일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등을 위한 측면에서 의무 바이오디젤 혼합 사용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세계 최대 바이오디젤 생산국이 되었다고 정부가 발표하였음. 최근의 급격한 팜오일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는 우려가 되는 정책임

- 경제 조정부 Airlangga Hartarto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日 13.7만 배럴 규모의 바이오 디젤 생산을 통해 미국, 브라질, 독일 등에 비해 생산 규모가 크다고 하였음. 미국은 日 11.2만 배럴, 브라질은 9.9만 배럴, 독일은 6.2만 배럴을 기록하고 있다고 장관은 발표하였음.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디젤 생산을 통해, 세계 바이오 디젤 시장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였음.
- 바이오 디젤은 긴 지방산 구조를 지닌 메틸에스테르 화합물들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디젤 엔진에 있어 대체 연료로 사용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팜오일에 기반한 바이오 디젤 생산을 하고 있음. 인도네시아가 팜오일을 바이오디젤의 원료로 삼게 된 것은 인도네시아가 세계 2번째로 큰 팜오일 생산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장관은 말하였음.
- 과학자들은 팜오일은 일반 디젤에 30% 비중으로 섞은 B30 디젤을 혼합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인도네시아는 에너지 안보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기존의 팜오일 산업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었으며, 석유 연료의 수입과 소비를 줄일 수 있었고 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음.
- 인도네시아가 바이오디젤을 생산한 것은 꽤 역사가 있는데, 2008년에 인도네시아는 상업용 바이오디젤의 생산을 63만 킬로리터까지 늘리게 되었고, 2.3만 킬로리터를 소비한 후에 나머지는 수출용으로 사용하였었음.
- 인도네시아의 바이오디젤 생산율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여왔는데, 2016년에는 300만 킬로리터 수준이었던 생산이, 2020년에는 850만 킬로리터까지 약 3배 증가하였음.
- 팜오일 플랜테이션 기금 운영 위원회(BPDP-KS) 회장인 Eddy Abdurrachman씨는 팜오일의 시장 가격 상승이 때때로 나타나면서 바이오디젤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디젤보다 비싸지는 경우도 나타난다고 하였음. 인도네시아 정부의 추정에 따르면, 석유와 팜오일 가격의 큰 차이로 인해서 바이오디젤 의무화 프로그램의 추가 인센티브는 46조 루피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출처 : Antara News)



## S&P, 인도네시아 국가 신용등급 BBB(Negative)로 유지



### ❖ 요약 및 시사점

코로나19로 인해서 인도네시아의 재정적자 규모가 크게 증대되었지만, S&P는 정부의 재정적자 관리 의지 및 일자리 창출 법안 통과를 통한 구조적인 개혁 의지 등을 감안하여 기존의 신용등급 수준인 BBB를 유지하였음. 성장률 개선을 통해 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임

- S&P는 인도네시아의 국가 신용등급을 BBB(Negative)로 유지하였음. 경제 성장에 대한 강한 회복 전망과 인도네시아 경제 당국의 신뢰감있는 정책 수행 의지 등을 반영한 평가 결과임. 이러한 평가 결과는 다른 신용평가 기관들인 Fitch가 BBB(Stable)로, R&I가 BBB+(Stable)로 평가한 것을 지지하여 주는 것임. 그러면서도 S&P는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대규모 재정 적자로 인한 리스크 및 대외 리스크의 강도가 커진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 S&P는 인도네시아 경제가 2021년에는 4.5%, 2022년에는 5.4%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음. S&P는 인도네시아 경제 회복 속도는 백신 접종 프로그램의 신속성과 효과에 달려있다고 밝히면서 글로벌 전체적인 코로나19 대응 역시도 인도네시아 경제 회복에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특히 수출 관련 부문이나 관광산업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대외 환경의 회복이 선제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 인도네시아 경제의 대외 부문 안정성은 인도네시아 정부 및 중앙은행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 노력에 달려있다고 하였음. S&P는 중기적으로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이 동일 등급에 속해 있는 비교 국가들에 대비하여 높은 편에 속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음.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며, 투자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법안의 통과를 통해서 구조적인 개혁 정책이 집행된다면 잠재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임. 또한 일자리 창출 법안을 통해서 고용의 유연성이 높아지면서 제조업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인도네시아 정부가 일자리 창출 법안을 코로나19 와중에서도 통과시킨 것이 인도네시아 경제가 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정책 집행자들에 대한 대외 신뢰를 개선해주었다고 평가하였음.
- 한편, S&P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3년에는 재정적자를 GDP대비 -3% 범위 이내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려운 도전 과제가 될 것이라고 보았음. S&P는 재정적자가 점진적으로 2021년에는 -5.7%, 2022년에는 -4.2%로 개선될 것으로 보았음.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높여둔 재정적자를 복원하겠다고 다짐하였음.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정부의 조달 이자를 낮춰주기 위해서 발행시장에서 채권을 매입해주는 것에 대해서도 인플레이션이나 채권 금리 움직임 등을 감안하여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하였음.

(출처 : The Insider Stories)



## ADB, 인도네시아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 4.5% 유지



### ❖ 요약 및 시사점

ADB는 글로벌 백신 접종 확산을 통해 교역이 활성화되고 글로벌 성장률이 개선됨에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수출 및 내수가 개선세를 보이면서 올해는 4.5%, 내년엔 5%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는 코로나19 변이와 백신 접종 지연을 꼽았음

-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이 2021년 4.5%, 2022년 5% 수준이 되면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아시아 개발은행(ADB)는 발표하였음. 아시아권 경제의 회복은 글로벌 경제 회복이 완연하게 일어나고 백신 접종이 진전을 좀 보이면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도 평가하였음.
- ADB의 인도네시아 담당인 Winfried Wicklein은 2021년 대규모 경제 회복 예산과 제조업 부문의 회복, 무역의 개선 등에 힘입어서 2022년에는 인도네시아가 정상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음. 2021년부터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면 인도네시아의 민간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되지만, 신용 성장률 회복은 불확실한 투자 환경이 남아있어서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음.
- 지난해 1.6%의 평균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인도네시아의 물가상승률은 2021년에는 2.4%, 2022년에는 2.8%까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음. 물가상승률이 올라오더라도 인도네시아 정부 및 중앙은행의 관리 범위 이내에서 관리될 것으로 보았음. 물가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으로는 루피아화의 평가 절하나 식료품에 대한 수요 증가가 있겠지만 정부의 물가 관리 물품들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보았음.
- 수출 부문에 있어서는 원자재 가격 강세에 힘입어서 2021년에 경상수지 적자를 GDP대비 -0.8% 수준까지 줄여낼 것으로 보았음. 투자는 내년 정도에 기계 기구 등 수입 자본재 도입이 증가하면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였고 이러한 자본재 도입으로 2022년의 경상수지 적자는 GDP대비 -1.3%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 ADB는 코로나19 변이의 등장으로 인해서 글로벌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면서,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의 백신 접종속도차이, 예상치 않게 긴축이 나오는 것들도 글로벌 회복에 리스크 요인이라고 말하였음. 인도네시아 국내 측면에서는 4월부터 시작된 라마단 기간 동안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백신 접종이 느려지는 것이 리스크 요인이라고 하였음.
-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ADB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국내 자원들을 모바일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환경적으로 친화적인 경제 개발을 이뤄갈 것을 요구하였음. 세금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재정 개혁을 진행하면서, 세금 징수 및 이행을 강화하는 것도 요구하였음.

(뒷면 계속)

- ▶ 아시아 중앙은행은 2021년 아시아권의 성장률이 7.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 또한 백신 접종의 확대에 기반할 것을 보았음. 아시아 지역의 2022년 성장률 전망은 5.3%로 속도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산업화된 국가인 홍콩, 중국, 대한민국, 싱가포르, 대만 등을 제외한 아시아권의 2022년 성장률은 2021년 7.7%, 2022년 5.6% 수준이 될 것으로 보았음. 아시아권의 성장에 대한 전망에서도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를 꼽았음
- ▶ 아시아권의 성장 회복의 주된 동력은 글로벌 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를 꼽았으며, 특히 제조업 부문의 반등이 이끌 것으로 보았음. 코로나19 변이 및 백신 접종 지연을 제외한 리스크 요인으로는 지정학적 갈등, 쏫티지 등으로 인한 생산 측면에서의 장애, 그리고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긴축 등을 꼽았으며, 장기적인 요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가 폐쇄되는 등으로 인해서 잠재적인 학습 정도가 낮아진 것을 우려사항으로 꼽았음.
- ▶ 아시아 지역별로 봤을 때 중앙아시아 지역은 올해 3.4%, 내년 4.0%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보았음.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 지역인 동남아시아 지역은 올해 4.4%, 2022년 5.1%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음. 반면, 태평양 일대 지역권의 경우 글로벌 여행 산업이 이동 제한으로 인해서 타격이 깊어지면서 관광산업 붕괴로 인해 올해 1.4%, 내년 3.8%의 더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음. 내수 진작과 강력한 수출에 힘입어 중국은 올해 8.1%, 2022년 5.5%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중국이 이끄는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2021년 7.4%, 2022년 5.1%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 ▶ 인도에 대해서는 11%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최근의 코로나 확진자수 급증으로 인해서 조정 가능성도 내비쳤음. 인도의 2022년 성장률은 7.0%로 전망하였음. 인도가 포함된 남아시아 지역의 성장률 전망은 2021년 9.5%, 2022년 6.6% 수준으로 전망하였음.
- ▶ 아시아 지역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인도와 중국에서의 식료품 가격에 의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완화되면서 지난해의 2.8% 상승보다는 낮아진 2.3%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음.